

‘新신사유람단’ 통해 세계 속으로

전북대 LINC+사업단, 학생 아이디어 실현 단계별 지원 아이디어 탐색부터 구체화·선진 탐방 등 실질 지원 4단계 지원 통해 최대 1700만원 지원... 창업 ‘첫 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이 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게 단계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소규모 학술동아리인 융합디바이스클럽을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학제융합캡스톤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단계로 직접 낸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관련 분야 해외 선진기업을 탐방해보는 ‘新신사유람단’을 운영하고, 최종 단계로 아이디어 제작활동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4단계를 통해 학생 팀당 최대 1,700여만 원의 실질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지난 6월 학생들의 아이디어 시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실제 191개 작품을 전시했고, 이 중 13개 기업이 18팀에게 투자를 약속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2개의 우수팀을 선정해 팀 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 미국과 중국에 보내 해외 우수 기업을 찾아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팀은 단청문

양의 체험키트를 제작해 1학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이나현·한혜진(산업디자인학과 4년), 김혜운·손예린(고교문화인류학과 3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치백제’ 팀과 드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동혁·이진우(기계시스템공학부 4년), 김태현(지구환경과학과 4년), 박진현(산림환경과학과 4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TMI’ 팀이다.

치백제팀은 자신들의 제작한 단청문양을 활용한 체험키트를 뉴욕에 직접 들고 가 필드 리서치를 통해 현지인들의 반응을 살폈고, 우리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TMI팀은 중국 광저우시의 ‘Ehang사’ (드론 제조 및 프로그래밍)와 ‘X-ag사’ (농업용 드론 제조)를 탐방하고, 선진 기술 탐방을 반영해 드론 분야의 창업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농업용 드론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농업용 드론 제작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첫 목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나현 학생은 “한국 전통문화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본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해외 관련 분야 해외 선진기업을 탐방해보는 ‘新신사유람단’을 운영하고 제작활동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며 “LINC+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해외 선진 사례까지 접목시킬 수 있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재수 교수팀 농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근정포장’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이전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곤충미생물공학 연구실 김재수 교수 연구팀이 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재수 교수 연구팀은 식물바이러스 매개하는 총채벌레의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해 (주)판한농에 기술이전했으며, 본 기술은 ‘총채썩’이라는 제품명으로 산업화되어 국내 해충방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되어 출시처해 완판됐다.

총채벌레는 원예, 화훼, 과수의 모든 작물에 연중 발생하는 바이러스 매개 곤충으로, 기존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개발 기술은 기존 작물 지상부에 존재하는 총채벌레를 방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새물결 미생물의 정착이 용이한 작물 지하부 토양에 미생물을 처리함으로써 총채벌레 번데기를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전략을 적용했다. 국내외를 통틀어 총채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토양 처리용 미생물 제품은 ‘총채썩’이 독보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김재수 교수는 농업용 미생물 제제로 알려진 엑스텐(EXTN-1), 토박이(B제)의 개발로부터 특색한 성공스토리를 총채썩 연구개발까지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농업, 산림, 축산 환경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해충방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수 교수 연구팀은 곤충병원성 보베리아 바시아나 및 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용 제제 등 기술이전 2건, 관련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5건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7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으며, 올해 국제 곤충병리학회 (Society for Invertebrate Pathology) 진균 분야 학술위원으로 선정돼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수한 방제효과를 통한 농작물의 상품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가 소득 향상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실사

도교육청, 58곳 대상... 실습환경 점검·CEO 면담 등

전북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19일까지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신청한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사 대상 기업은 전북 36개 기업, 경기 11개 기업, 충남·북 8개 기업, 광주·전남 3개 기업 등이다.

현장실사에서는 기업의 ▲직무분야 적합성 및 교육여건 ▲안전·보건관리 현황 ▲기업 여건 ▲CEO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사단은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특성학교·마이스터고 교감·교사, 학부모, 선도기업 신청학교 담당자, 노무사, 노동조합 관계자 등 86

명이 9개조로 나눠 실사를 벌인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오는 22일 현장 실사 결과 등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도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직무분야 적합성, 교육여건, 안전·보건관리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위원회는 지난 8월에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신청한 23개 기업 중 4개 데 4개 기업을 각각 불인정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전시회 개최

‘꿈꾸는 기계인형, 오토마타전’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오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학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꿈꾸는 기계인형 오토마타展’을 연다.

오토마타(Automata) 어원은 ‘스스로 동작하다’인데 현대에 와서는 종이, 나무 등 여러 종류로 만든 인형이나 조형물에 여러 가지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출하는 새로운 예술장르를 뜻하기도 한다. 즉, 생명과 우주운동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동경을 시각화하는 예술 작품이다.

인문,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오토마타전은 작품 전시, 작품 이해, 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전시될 작품은 신화, 전설, 민담, 전통 놀이 등에 영감을 받은 소박하고 한국적인

오토마타 20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 및 메커니즘 12작품을 포함하여 총 32작품이 전시된다. 패널을 통해 오토마타의 역사와 현대 오토마타 예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전시기간 중 11월 토요일에는 한 회당 초등학교 학생 16명 총 128명을 대상으로 ‘오토마타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토마타에 대한 원리를 배우면서 하늘을 나는 호랑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전북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오토마타 전시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통찰력이 신장됨과 동시에 꿈꾸는 인형과 함께 관객들이 꿈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서출판 펭귄나라, 환경동화책 6종 600권 기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어울림 학교 100개교에 도서출판 펭귄나라에서 기탁한 도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국내 유일의 펭귄서적 전문출판사인 펭귄나라(대표 김원수)와 남극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환경동화책 6종 600권(1,000만원 상당)에 대한 기탁 행사를 가졌다.

도서출판 펭귄나라 김원수 대표는 지구온난화와 안전을 주제로 한 환경동화 ‘아~뜨거! 펭귄’의 5종을 교육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처럼

환경보호와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적합하게 활용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서출판 펭귄나라는 우리지역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출판사로 지구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책들을 출간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환경과 안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탁자의 뜻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 모든 책에 부착한 6종 1세트를 관내 어울림학교 100개교에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

나만아기든
대둔산 케이블카